

전남 지자체 레미콘 공장 신설 잇단 소송전

장성·고흥군 이어 보성군 '승인신청 반려 취소' 피소 "명확한 허가 규정 마련 행정력 낭비 막아야" 목소리

레미콘 공장 신설을 놓고 전남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 A사는 보성군 별교읍 영동리 산 284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보성군은 앞서, A사 공장 예정부지의 경우 국제암사르협약에 따른 습지 보호구역인 별교갯벌과 인접, 해당 지역 내 레미콘 공장 건립으로 인한 습지 파괴 및 레미콘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분진·소음, 농·수·축산농가 피해 등을 우려해 승인을 불허했다. 주민들도 정적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군 설명이다.

A사는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에 레미

콘 공장 건립을 승인한 전례가 있다는 점과 습지 파괴나 소음, 사고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2차례의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전으로 끌고갔다.

보성 뿐 아니라 장성과 고흥도 레미콘 공장 건립을 둘러싼 업체와의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장성군 황룡면 B업체는 이미 건립된 시멘트 공장 내 레미콘 추가 건립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장성은 이미 두 차례의 관련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점을 감안, 현재 진행중인 소송도 낙관하고 있다.

고흥군도 레미콘 공장 건립을 불허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소

송전을 벌이고 있다. 고흥군 C업체는 포두면 옥강리 폐교 부지를 매입, 레미콘 공장 건립 승인을 냈다가 거부당한다 불복,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고흥군은 비슷한 재판을 벌이던 경기시흥시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전례로 삼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 입장, 환경, 교통사고 위험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를 결정했다"면서 "효과적으로 대응,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귀농인들이 목공 교육을 받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귀농학교 귀농인 생활목공 교실

'귀농해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봐요!' 귀농인들을 위한 생활 목공 교육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곡성군은 최근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에서 생활목공 교실을 운영했다.

'내 집은 내가 꾸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감안한 것으로, 건널노조 광주전남 건설본부 소속 전문가와 함께 안전교육을 비롯한 실생활에서 사용되

는 공구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귀농한 뒤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용적인 목공교육을 받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 정적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은 최근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108개의 사업 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보성군 제공>

녹차 할랄 인증 추진하고 '별교문화재 夜行' 행사 열자

보성군 신규시책 보고회

눈길 끄는 정책들 쏟아져

'보성 의병과 서편제, 소설 태백산맥 등 유·무형 자산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보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자!', '보성 녹차, 녹차비누, 녹차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추진하자.'

보성군이 최근 개최한 '2018 신규시책 보고회'에는 관심을 끄는 정책들이 적지 않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돼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지 눈길이 쏠린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은 모두 108건으로 새롭게 발굴된 정책만 94건에 달한다. 우선, 할랄 식품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에

주목해 내놓은 '보성녹차 할랄(HALAL) 식품 인증' 정책이 눈길을 끈다.

세계 식음료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18억)를 겨냥, 녹차·녹차비누·녹차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을 추진해 무슬림 인구의 62%, 할랄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동남아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보성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별교문화재 야행(夜行)'은 유·무형 자산이 충분히 현실화 여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보고회에는 ▲뗏목다리 별교홍교, 공간을 잇다 ▲별교의 음악과 소설,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소설 태백산맥 속 별교문화 거리와 보성서관, 뗏목다리 옛 장터를 포함한 문화재 야행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지역민들이 60년마다 회갑잔치를 열어주는 전통을 이어 지난 1958년 6

주갑 이후 내년 7주갑을 맞아 추진하자는 별교 홍교 7주갑 기념사업도 주목받는 사업이다.

사슴 고기로 육포나 갈솥제를 만들어 판매, 활용하자는 정책도 제시됐다. 사슴고기를 가공, 육포·녹중탕·녹용·갈솥제 등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책 타당성을 주장했다.

보고회에서는 이외 ▲별교갯벌 꼬막자원 회복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메타세쿼이아 숲 로드정원 조성 정책 등도 내년도 정책으로 제안됐다.

보성군은 사업 타당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정책을 검토, 추진 여부를 결정할 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숨은 명소 찾아 토닥토닥 걷기

곡성군 23일 행사 개최

곡성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 다니는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행사'가 오는 23일 석곡 코스모스 축제장 일대에서 열린다.

곡성군은 제 9회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행사를 석곡면 대항강 제방길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행사'는 지역민들 주도로 지난해부터 매월 1회 개최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고달면에서 처음 시작한 뒤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항강 자연휴식공원을 출발~보성강 천변 코스모스길~반구정 습지~코스모스길~석곡 코스모스축제장~자연휴식공원을 돌아오는 5km(1시간 30분) 코스다.

그동안 토닥토닥 행사는 곡성의 숨겨진 장소를 찾아 알리는 지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곡성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과 향후,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 겨울을 곡성의 숨겨진 명소를 찾는 기간으로 삼고 내년 3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문화원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효를 주제로 한 예술 공모전이 열린다. 곡성문화원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 18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을 연다.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효(孝)'의 의미를 새겨보고 생활 속에서 '효(孝)'를 실

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곡성 대표축제인 '곡성심청축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글짓기와 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효'를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수상자는 오는 11월 10일 발표된다. 문의(061-362-0890).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학부모들.

<고흥교육지원청 제공>

고흥교육지원청 '학부모 미술심리 상담과정 연수'

고흥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자녀간 소통 기회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부터 영재교육원에서 8차례에 걸쳐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7 학부모 미술심리 상담과정 연수'를 진행 중이다. 미술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간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상담방법을 터득, 자녀의 진

로 설계를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학부모들은 전문가로부터 미술치료의 이해와 매체, 미술치료, 그림검사 등을 주제로 연수를 받으며 상담 방법을 배웠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미술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